

光日春秋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나쁜 일이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듯이 좋은 일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일이 있기 훨씬 오래 전부터 작은 것들이 하나가 모쳐져 두툼고 광활한 땅을 달을 따는 것은 하루아침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기술력과 인재 경영으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오르는 일이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다. 작은 흙알갱이가 쌓여 큰 산을 이루고, 조그만 물줄기가 합쳐져 거대한 강을 만든다. 하늘의 작은 별들이 모여 우주를 형성하고, 돌맹이 하나가 모쳐져 두툼고 광활한 땅을 만든다. 세상의 어떤 좋은 일든 시간과 성실과 정성이 그 안에 깃들여 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역시 어느 날 운이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문학 유전자, 작가가 어려서부터 읽은 수많은 책과 주옥같은 문장들, 같은 주제로 치열하게 문학 작품을 써내려갔던 선배 문

작은 것의 마법

인들, 작가에게 영향을 주었던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 작가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 작가를 키워 냈던 대한민국의 역사적 도량, 심지어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현 시대의 다양한 폭력들, 따지고 들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작은 이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개인의 수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상인 것이다. 여전히 꺾어내야 할 역사의 아픔이 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합리가 상존하는 대한민국이, 그 아픔과 불합리를 이겨내야 하고 풀어내야 한다는 의미의 노벨문학상인 것이다. 요즘 들어 갑자기 삶이 짜고 몸무게가 늘었다고 격정하는 사람들은 적은 양이지만 간식을 자주 먹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잦은 간식이 몸에 축적되어 살이 되는 것이다. 실적이 안 좋아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도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잘나갈 때 영원할 것이라 착각에 작은 위기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기 때문이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은 없다. 물이 잘 나올 때 다 큰 우물을 파야 한다.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잃고 헤매는 권력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돌을 맞아도 견뎌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돌을 던지려고 하는지 고민이 없다면 결국 쓸쓸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작은 것

들이 얼마나 큰 마법의 힘을 발휘하는지 실감하지 못한다. 우주가 작은 것의 오랜 시간 축적이고, 존재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간이 살아온 모든 역사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쌓이면 마법이 된다. 단단한 얼음(堅氷, 견빙)은 작은 서리(霜, 상)가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고, 위대한 업적은 쉬지 않고(無息, 무식) 성실하게 살아온(至誠, 지성) 결과다. 쉬지 않으면 오래가고(久, 구), 오래가면 드러나고(徵, 징), 드러나면 원대해 지고(悠遠, 유원), 원대해지면 넓어지고(博厚, 박후), 넓어지면 높아진다(高明, 고명). 넓어지면 모든 것을 실어주고(載物, 재물), 높아지면 모든 것을 덮어준다(覆物, 복물). 그것이 우주와 운행하는 원칙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다. 오늘 하루가 승부처다. 작은 것이 경쟁력이다. 작다고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다. 몸에 벨 넥타이 큰 부자를 만들고, 작은 기술이 쌓여 초격차를 만든다. 작은 신뢰가 쌓여 정권의 존망을 결정한다. 서리가 내리는 상강(霜降)은 겨울을 만드는 작은 첫걸음이다. 이 서리가 쌓여 단단한 겨울을 만들어 낼 것이다. 큰 목표를 세우고, 거대한 담론으로 세상을 살기 보다는 오늘 이 순간 작은 것의 마법을 믿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그런 분들이 미래를 바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생사대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전생에 지은 업보는 부처님도 어쩔 수 없는지라 그 업(業)을 청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숙제이다. 업은 보통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자기가 버릇 들이는 자습업(自習業)이고 또 하나는 상대가 있는 대타업(對他業)이다. 여기에서 자습업이란 심신을 작용할 때 만들어진 성성이 모여서 성격을 만들고 재능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대타업이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에 따라서 그 과가 돌아오는 정업을 말한다. 사람들은 전부 각자의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지은 업을 천업(天業)이라고 한다. 하얀 종이에 붓글씨를 쓰면 어떤 사람은 거칠게 쓰고 어떤 사람은 예쁘게 쓰듯이 본래 우리 성품은 깨끗하지만, 한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습성이 다르게 형성된다. 흔히 좋은 습성을 가진 사람을 법 없이도 삼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좋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일과 자기 공부를 잘 찾아서 한다. 그런데 습성을 잘못 들인 사람은 남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또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

낙엽이 지면 뿌리로 돌아가지만...

기도 한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전생에 어떤 습성을 길들였느냐에 따라 내향적인 성격을 갖거나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각각 다르게 태어난다. 정업은 자기가 스스로 지은 천업과는 달리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과 식물 등 상대에게 행한 것이 업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미물 곤충에게 함부로 한 것이 갑자기 피부병이나 피부암 등으로 나타나서 그 과보를 받게 한다. 이처럼 상대가 있는 업은 언젠가 반드시 나를 찾아와서 그 대가를 받게 한다. 이 정업을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주는 업이라서 그렇다. 최악의 경우는 내 상대가 가장 안 좋을 때 밖에서 지은 업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경우이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할 잘하면 자기 습성을 녹여서 밖에서 오는 업을 훨씬 감해서 받을 수 있다. 이 습성을 녹이기 위해서는 삼대력을 얻는 공부, 마음 훈련 공부로 나쁜 자기 습성을 먼저 고쳐나가는 야 한다. 천업을 임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나쁜 전생 습관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현생에 공부 표준을 잘 정해서 좋은 습관을 길들여 나가고 자주 돌려서 욕심을 가라앉히면 가능하다. 그런데 밖에서 지은 업은 그 권한이 상대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정업은 난연이라고 하셨다. 줄여서 받고 미뤄서 받을 수는 있지만 아주 안 받을 수는 없다. 마음 비우기를 끊임없이 계속하면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 금생에 커다란 공덕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심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다음

생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 부동심을 만들고 기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입정 공부를 많이 해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단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마음을 낼 때 '있다 없다' 또는 '잘했다 잘못했다'하는 마음을 초월할 줄 알아야 한다. 육조 혜능스님이 열반을 앞두고 있을 때 한 제자가 여쭙었다. "스님,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육조 스님이 "엽라귀근(葉落歸根)이다"라고 대답하셨다. '엽라귀근'은 낙엽이 지면 뿌리로 돌아가는 말이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낙엽이다.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을 다 지우고 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법문에 '대경지지(大境止)'하라는 말이 있다. 경계를 당해서는 잠깐 멈추라는 말이다. 옛날 어른들이 선을 할 때는 멈추고 또 멈추라는 말을 많이 했다. 열반 한 번에 좁쌀만큼 정력이 쌓인다는 믿음으로 멈추고 멈추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것을 늘 유념해야 생사대사를 해결할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어떤 심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다. 쉽이 입정 공부도 하고 기도 정진도 하면서 열 사람도 모르게 귀신도 모르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다.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생사대사를 문턱 넘듯이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야 자기의 업을 초월할 수 있고 정업이 돌아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 어느 전생 철모를 때 지은 업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내 앞을 가로막을지 아무도 모른다. 부디 잘 챙겨서 생사거레에 자유하기를 바란다.

社說

'예향' 아카이브의 힘 확인한 한강의 '푸른 산'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월간 '예향'은 한국 문화예술 아카이브(Archive·기록보관소) 역할을 특목하고 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초기 단편소설 '푸른 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1994년 서울신문을 통해 등단한 한강은 그해 예향 7월호(통권 118호)에 '푸른 산'을 발표했다. 소설은 원고지 120매 분량으로 김진수 화백의 삽화와 함께 12페이지에 걸쳐 실렸다. 24세로 었지만 우수에 찬 한강의 얼굴은 30년이 지난 현재 작가의 모습을 엿보게 한다. 한강은 당선 소감에서 "무릎이 꺾인다 해도 그 꺾이는 무릎으로 다시 한 발자국 내딛는 용기를 이제 배워야 하리라"고 밝혀 5·18과 같은 국가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시적 산문으로 표현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예고하는 듯 하다. 통상 작가들의 초기 작품은 향후 창작

된 작품 세계 등을 조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예향을 통해 발표한 '푸른 산'에도 한강 작품의 일반적인 특징인 시적인 산문을 비롯해 서정적 문체와 섬세한 감수성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한강 외에도 많은 작가들이 예향을 작품 발표 무대로 활용했다. 송기숙의 '은내골 기행', 한수산의 '그리고, 새들은 울기 시작했다'와 같은 장편소설은 물론 이미란의 '또 하나의 이별', 주인석의 '한여름 밤의 꿈' 같은 단편소설이 그것이다. 올해로 창간 40주년을 맞은 예향은 작가들의 작품 소개는 물론 품격있는 문화 예술 특집 기사와 명사들의 생생한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은 물론 한국 문화예술의 아카이브 역할을 하고 있다. 한강의 '푸른 산'은 이런 예향 아카이브의 힘을 상징한다. 예향은 앞으로도 시대 흐름을 읽은 고품격 문화매거진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전기요금 또 산업용만 인상... 지역기업 부담 커

정부가 아예 가정용을 제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키로 하면서 지역 제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선진국과 달리 산업용 대비 가정용 전기요금이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상황에서 또다시 산업용만 인상하는 것은 여론의 눈치를 본 정부의 순수한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가정용 요금을 올려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보다는 정부의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어 저항이 덜한 기업들의 전기요금만을 올린 다분히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기득이나 고금리·고환율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기업들은 고정비용이 대폭 상승해 죽을 맛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그제 브리핑을 열어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고, 국민경제 부담과 생활불가 안정 등을 고려해 주택용과 식용을 비롯한 상업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력 총사용량의 53%는 산업용으로 쓰이

며, 47%는 가정용과 일반용 등으로 사용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한쪽 으로부터 넘길 경우 부담이 너무 큰 만큼 전기요금 인상시에는 가정용과 일반용에도 일부나마 인상분을 부담시키는 게 합리적이다. 한전은 최근 3년간 7차례에 걸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가정용은 5차례에 그쳤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산업용 요금은 1kW(키로와트시) 당 72.6원이 올라 40.4원이 오른 가정용 인상폭을 크게 웃돌았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기업들도 이해하는 바이다. 다만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원재품 가격을 높여 물가인상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내후년부터는 선거가 잇따라 있어 또다시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전기요금 인상시에는 산업용과 가정용의 합리적인 인상이 추진되길 바란다.

無等鼓

11번의 한국시리즈에서 11번의 우승, 시리즈 개막을 앞두고 이범호 감독에게 맡은 쉽다. 긴장감 가득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강적'과의 맞대결인데 야구공은 둥글다. 하지만 타이거즈는 11번의 한국시리즈를 모두 우승으로 장식했다. 전신해태시절부터가 챔피언으로 군림했던 KIA가 'V12'를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우려의 시선 속 80년대생 첫 KBO 사령탑에 오른 이범호 감독은 정규시즌 1위를 이끌고 통합 우승까지 노리고 있다. 현역 시절 이범호 감독은 '만루의 사나이'로 통했다. 만루에서 끝까지 선배들이 해온 역무려 17차례 담장을 넘기면서 KBO 최다 만루 홈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 선수로 우승을 이룬 2017 한국시리즈에서도 그는 그랜드슬램을 쏘아 올렸다. 이 감독은 그해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앞선 시리즈 부진을 털어낸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고, 이날 KIA는 11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만루 상황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던 감성장이지만 감독으로 맞는 한국시리즈는 다르다. 내 것만 하면 됐던 2017시즌과 달리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피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급까지 선배들이 해온 역무려 17차례 담장을 넘기면서 KBO 최다 만루 홈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 선수로 우승을 이룬 2017 한국시리즈에서도 그는 그랜드슬램을 쏘아 올렸다. 이 감독은 그해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앞선 시리즈 부진을 털어낸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고, 이날 KIA는 11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만루 상황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던 감성장이지만 감독으로 맞는 한국시리즈는 다르다. 내 것만 하면 됐던 2017시즌과 달리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피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김여울 체육부 차장 wool@

불패 신화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洵堯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박병훈
광주교육시민연대부서
특목브레인심리발달연구소 대표

한강 신드롬이다. 한강 작가의 책이 품절되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강 작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고 한다. 독자들은 한강 작가가 운영하고 있는 있는 독서서점을 방문하여 인증샷을 찍기도 한다. 손해를 보면서 작은 독서서점을 운영한 것도 한강 작가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그녀의 삶과 작품에 관한 조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약자들과 어울리며 명구는 문학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사회, 차별과 편견이 가득한 사회, 한 겹만 벗기면 드러날 위선과 거짓에도 부끄러움과 부채의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간들이 성찰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존엄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평을 하면서 한강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 수상 소식을 접한 날은 나의 예순 번째 생일날이었다. 대단한 생일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재빨리 한강 작가의 신간을 검색하여 주문했다. 돌아온

펜의 힘, 칼의 힘

답은 주문한 소설 세트를 받기까지는 일주일쯤 걸린다는 것이었다. 그대로 말 수는 없었다. 차선책으로 서재를 꼼꼼히 살펴 예전에 읽었던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 불꽃'을 다시 읽었다. 차근차근 읽고서야 채식주의자에서 예시된 복선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내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변형된 모습을 기억의 공간에서 찾아내게 되었다. 소설의 등장 인물들이 묘사하고 있는 캐릭터는 감추고 싶지만 인정해야 하는 내면의 내 모습이었다. 과거의 나이기도 했고 현재의 나이기도 했다. 나의 가학성과 희생양인 내가 그려지기도 했다. 내가 자란 고향은 고천암을 마주하고 있다. 지금은 상전벽해가 일어나 아름답던 바다는 사라졌다. 그 바다에는 없는 게 없었다. 간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바지락, 쟁쟁어, 송어, 전어 등 해산물이 가득한 마을 사람들의 자연 식탁이자 낚성과 역할을 했다. 할아버지는 쟁쟁어를 낚는 장인이었다. 쟁쟁어를 낚는 기술을 시전할 때는 갑탄이 정로 나왔다. 바닷가 모래사장은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동네 아나네들이 초겨울에 감장을 담그기 위해 배추를 절이려고 삼삼오오 모여드는 곳이기도 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 펼쳐진 바다는 마음의 안식처였다. 그림처럼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졌다. 어쩌다 운 좋게 잠시 동안 운 세상을 볼게 물들인 석양의 노을을 보는 날에는 시름이 없어지기도 했다. 지게질 하지 않기를 원했던 아버지 바람대로 고등학교 때에 광주로 유학을 왔다. 회색빛의 시멘트로 둘러싸인 건물들 틈에서 툰내뿜어처럼 돌아가는 도

회지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행할 때면 고향의 바다가 생각났다. 고향의 바다는 그때 죽었다. 식량자급이라는 미명아래 방조제로 허리를 잘려 죽었다. 고등학교 입학한 때 5·18을 겪었다. 세월이 한참 지나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을 때 대학원 지도교수와 함께 모란꽃이라는 심리극 대본을 쓰게 되었다. 그 대본은 5·18을 겪은 한 여성의 저항과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다. 그 여성을 인터뷰했다. 인간의 잔혹함과 강인함, 연약함을 느꼈다. 모란꽃은 모진 고문 속에서 계엄군들이 그녀에게 억지로 붙인 간첩명이다. 이 작품은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극단 토박이에 의해 무대에 올려져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올가을에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된다. 한강 작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끈질기게 응시하며 풀어왔다. 사람은 오랜 기간에 축적된 집단무의식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동시에 과거 경험의 총합이다. 한강 작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소년이 온다'를 집필하고 나서 자신의 삶도 변형되고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노라고. 강지희 평론가는 "한강의 소설은 약하고 연한 살성과 물질인 때로 이루어진 인간이 어떤 존재일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다. 한 뼘의 미학이다"라고 표현했다. 한강 작가 신드롬을 보면서 펜과 글로 감동받는 힘이 무력과 강제에 의한 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 기쁘다. 독서는 비판의식과 세대, 세상과 호흡하는 힘을 기른다. 광주교육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마음이 배부른 가을이다. 세상이 무력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펜의 힘을 끈질기게 응시하자.